

진 정 서

진 정 인 성명: 조희경
소속: (사)동물자유연대
직책: 상임대표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번호: 02)2292-6337

피진정인: 환경부 장관 (경유: 환경부 자연자원과)

진정 요지

거제씨월드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 허가에 대한 재고 요청

진정 내용

최근 본 단체는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체험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을 신청한 러시아 흰고래 네 마리에 대해 환경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수입 계획인 큰돌고래에 대해서도 삼 개월 이내의 임시 사육을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불허 결정의 이유는 거제씨월드가 현재 사육 시설로 보유하고 있는 가두리 시설에서 돌고래를 오랜 기간 사육했을 때 해양 수질 오염과 동물 질병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동반경이 넓고 무리 생활을 하며 인지능력이 있는 민감한 동물인 돌고래는 사육 상태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거제씨월드가 건립하겠다는 돌고래 체험 시설의 완공 시점도 불투명하고, 시설이 돌고래의 사육 기준에 부합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삼 개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임시 가두리 시설만 가지고 큰돌고래 네 마리의 수입을 허가하는 것은 주변 자연 환경과 동물들의 생명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큰돌고래 등 돌고래류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의 부속서 II에 속하는 종으로 국제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돌고래는 보호종으로 인식되어 해양 포유류의 야생에서의 개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불법적인 경로로 포획된 개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연으로 방류하려는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 동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 시민단체로서, (사)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가 거제 씨월드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 허가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 씨월드 뿐 아니라 앞으로 전시, 공연 등 오락산업에 이용하는 용도로 멸종위기종 동물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심사와 허가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13일
(사)동물자유연대